

## GLOBAL TREND

# 세계지방자치동향

### 미국

캘리포니아 주(州) “우발성 마약 사용 관리 프로그램 (Contingency Management Program)”  
- 바우처 제공을 통한 마약 재범 방지 및 관리 정책

### 일본

일본은 지방재정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나?

### 네덜란드

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인가? 지역을 위한 인재육성인가? - 네덜란드 로테르담(Rotterdam)시의 사례

### 일본

일본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활성화

### 한국

100세 시대,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대응과 개선 방향



# 일본은 지방재정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나?

## 개요

- ▶ 일본이 지방재정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해 세입 및 세출의 구성 항목 변화를 이용하여 살펴봄
- ▶ 일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고지출(보조)금을 증대하였으나 다량의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켰음. 따라서 평상시의 건전 재정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

## 코로나19 지방재정 대응 방법

- ▶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지방재정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그 발생이 있었던 2020년도의 지방재정의 구성 항목의 변화를 이용함
- ▶ 일본의 지방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(都道府県)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정촌(市町村)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각 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 항목의 구성 변화를 살펴봄
- ▶ 자료는 총무성의 『지방재정통계연보』에 나와 있는 광역·기초자치체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치(결산액)를 이용함

##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도도부현 세입 항목의 변화

- ▶ <표1>은 2019년도와 2020년도 도도부현 세입(歳入) 항목별 결산치 구성 비율임
- ▶ 도도부현 세입(歳入) 항목은 지방세, 지방양여세, 지방교부세 등, 국고지출금(보조금), 세외수입, 지방채로 이루어짐

- ▶ 코로나19가 도도부현 세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도부현 세입 구성의 변화를 보면 지방세는 2019년 40.7%에서 2020년 33.2%로 7.5%p나 하락하고, 국고지출(보조)금은 2019년 11.6%에서 2020년 20.0%로 8.4%p나 상승하고 있음
- ▶ 이와 같은 변화는 도도부현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사태를 맞이하여 국고지출(보조)금을 이용하여 대응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
- ▶ 한편 2020년 지방양여세(2.9%) 및 지방교부세(14.4%)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, 이는 국고지출(보조)금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상대적 비중의 감소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

표 1. 도도부현 세입(歳入) 항목별 결산액 구성 추이 (단위:%)

|      | 합계  | 지방세  | 지방 양여세 | 지방교부세 등 <sup>1)</sup> | 국고 지출금 | 세외 수입 | 지방채 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
| 2019 | 100 | 40.7 | 4.3    | 17.4                  | 11.6   | 15.0  | 11.0 |
| 2020 | 100 | 33.2 | 2.9    | 14.4                  | 20.0   | 18.7  | 10.8 |

출처: 総務省(各年度)『地方財政統計年報』1-4-4表(都道府県歳入決算累年比較)를 이용하여 작성

1) 지방교부세 등은 지방교부세에 시정촌담배세 도도부현 교부금(2005년부터), 지방특례교부금(1999년부터), 국유제공시설등 소재 시정촌조성 교부금,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을 합한 것임

##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시정촌 세입 항목의 변화

- ▶ <표2>는 2019년도와 2020년도 기준 시정촌 세입(歳入) 항목별 결산치 구성 비율임
- ▶ 시정촌 세입(歳入) 항목은 기본적으로 도도부현 항목과 같지만, 시정촌은 도도부현으로부터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세입 항목에 도도부현지출금(보조금)이 포함되어 있음
- ▶ 2019년과 2020년의 시정촌 세입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9년 33.4%에서 2020년 26.0%로 대폭 하락하고, 국고지출(보조)금은 2019년 16.0%에서 2020년 32.1%로 두 배나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음
- ▶ 이는 도도부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정촌에서도 국고지출(보조)금을 이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

표 2. 시정촌 세입(歳入) 항목별 결산액 구성 추이 (단위:%)

|      | 합계  | 지방세  | 지방 양여세 | 지방교부세 등 <sup>2)</sup> | 국고 지출금 | 도도부현지출금 | 세외 수입 | 지방채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
| 2019 | 100 | 33.4 | 0.7    | 19.9                  | 16.0   | 6.8     | 14.6  | 8.6 |
| 2020 | 100 | 26.0 | 0.6    | 16.2                  | 32.1   | 5.9     | 12.2  | 7.1 |

출처: 総務省(各年度)『地方財政統計年報』1-4-7表(市町村歳入決算累年比較)를 이용하여 작성

2) 지방교부세 등은 지방교부세에 더하여 지방특례교부금을 비롯한 자동차취득세 교부금, 법인사업세 교부금, 국유제공시설 등 소재 시정촌 조성 교부금, 특별구 재정조정 교부금 등을 합한 것임

##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도도부현 목적별 세출 항목의 변화

- ▶ <표3>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각각 도도부현 목적별 세출 항목의 결산치 구성 비율을 나타냄
- ▶ 도도부현 목적별 세출 항목은 의회·총무비, 민생비, 위생비, 농림수산업비, 상공비, 토목비, 경찰비, 교육비, 공채비, 기타로 구성됨
- ▶ 코로나19가 도도부현 목적별 세출에 미친 영향은 위생비와 상공비를 보면 알 수 있음
- ▶ 위생비 비중은 2019년 3.2%에서 2020년 6.8%로 2.1배 상승하였으며, 상공비\*도 2019년 6.1%에서 2020년 14.3%로 2.3배 상승하였음

\*상공비라 함은 상공업이나 관광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말함

- ▶ <표1>의 도도부현 수입 구성과 연계하여 살펴보면, 도도부현은 국고지출(보조)금을 위생비 및 상공비에 많이 지출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
- ▶ 또한 <표3>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위생비와 상공비의 상대적 상승은 교육비의 상대적 감소(2019년 20.6%에서 2020년 17.1%로)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

표 3. 도도부현 목적별 세출 결산액 구성 추이 (단위:%)

|      | 합 계 | 의회·총무비 | 민생비  | 위생비 | 농림수산업비 | 상공비  | 토목비  | 경찰비 | 교육비  | 공채비  | 기타  |
|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|
| 2019 | 100 | 6.5    | 16.6 | 3.2 | 4.9    | 6.1  | 12.0 | 6.8 | 20.6 | 13.5 | 9.7 |
| 2020 | 100 | 5.1    | 16.3 | 6.8 | 4.2    | 14.3 | 10.5 | 5.6 | 17.1 | 11.1 | 9.2 |

출처: 総務省(各年度)『地方財政統計年報』1-4-5表(都道府県目的別歳出決算累年比較)를 이용하여 작성

##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시정촌 목적별 세출 항목의 변화

- ▶ <표4>는 2019년도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시정촌 세출 항목별 결산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임
- ▶ 도도부현 세출 항목과는 달리 시정촌 세출 항목에는 경찰비 항목이 없는 반면 소방비 항목이 들어가 있음
- ▶ 이는 경찰서비스는 도도부현이 제공하고 소방서비스는 시정촌이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함
- ▶ 시정촌 목적별 세출 구성 변화는 도도부현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
- ▶ 도도부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생비와 상공비가 크게 늘어났으나, 시정촌에서는 이들 지출 항목에 대한 영향은 적고 의회·총무비 비중이 2019년 12.6%에서 2020년 27.1%로 두배 이상(10.8%p)나 상승하고 있음
- ▶ 이는 코로나19 대책에 수반되는 시정촌의 전반적인 사무 비용을 방대하게 증대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음
- ▶ 의회·총무비는 의회비와 총무비의 합계인데 총무비\*가 대부분을 차지함

\*총무비라 함은 자치단체 전반적인 사무나 종합계획책정, 재산관리, 통계, 지방세 과세나 공과금 징수 등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함

표 4. 시정촌 목적별 세출 결산액 구성 추이 (단위:%)

|      | 합계  | 의회·총무비 | 민생비  | 위생비 | 농림수산업비 | 상공비 | 토목비  | 소방비 | 교육비  | 공채비 | 기타  |
|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
| 2019 | 100 | 12.6   | 36.7 | 8.3 | 2.3    | 3.0 | 10.8 | 3.3 | 12.6 | 9.3 | 1.2 |
| 2020 | 100 | 27.1   | 29.7 | 7.0 | 1.9    | 4.1 | 8.7  | 2.6 | 10.6 | 7.2 | 0.8 |

출처: 総務省(各年度)『地方財政統計年報』1-4-8表(市町村目的別歳出決算累年比較)를 이용하여 작성

##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도도부현 성질별 세출 항목의 변화

- ▶ <표5>는 2019년도와 2020년도를 기준으로 도도부현 성질별 세출 항목 결산치 구성 비율을 나타내었음
- ▶ 도도부현 성질별 세출 항목은 인건비, 물건비, 부조비, 보조비, 보통건설사업비, 재해복구사업비, 공채비, 대부금, 기타로 구성됨
- ▶ 성질별 세출 구성의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보면, 보조비의 지출과 대부금 지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
- ▶ 그 구성 변화를 보면 보조비의 비중은 2019년 25.1%에서 2020년 30.9%로 5.8%p 상승하고 있으며, 대부금의 비중은 2019년 5.3%에서 2020년 11.0%로 두배 이상(5.7%p) 상승하였음
- ▶ 이는 도도부현 정부가 민간으로의 보조금이나 대부금을 크게 늘리며 코로나19에 대처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
- ▶ 한편 코로나19는 도도부현 인건비의 상대적 감소를 가져오고 있음(2019년 25.4%에서 2020년 20.9%로 하락)

표 5. 도도부현 성질별 세출 결산액 구성 추이 (단위:%)

|      | 합계  | 인건비  | 물건비 | 부조비 <sup>3)</sup> | 보조비  | 보통건설사업비 | 재해복구사업비 | 공채비  | 대부금  | 기타  |
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2019 | 100 | 25.4 | 3.6 | 2.2               | 25.1 | 16.1    | 1.2     | 13.4 | 5.3  | 7.6 |
| 2020 | 100 | 20.9 | 3.5 | 1.9               | 30.9 | 13.7    | 1.0     | 11.0 | 11.0 | 6.1 |

출처: 総務省(各年度)『地方財政統計年報』1-4-6表(都道府県性質別歳出決算累年比較)를 이용하여 작성

3) 부조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생활곤궁자, 아동, 노인, 심신장애자 등을 원조하기 위한 지출을 뜻함

##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시정촌 성질별 세출 항목의 변화

- ▶ <표6>은 2019년도와 2020년도를 기준으로 시정촌 성질별 세출 항목 결산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임
- ▶ 시정촌 성질별 세출 항목은 도도부현과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음
- ▶ 시정촌 성질별 세출 구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면, 보조비의 지출 비중이 2019년 7.4%에서 2020년 24.3%로 3.3배나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
- ▶ 한편, 도도부현과는 달리 대부금 지출 비중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(2019년 1.7%, 2020년 2.2%)
- ▶ 이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도도부현에 비해 시정촌이 보조비 지출이 훨씬 많았던 것에 비하여 대부금의 지출은 주로 도도부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음
- ▶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조비 지출이 월등하게 늘어난 결과 대부금을 제외한 다른 지출 항목의 상대적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

표 6. 시정촌 성질별 세출 결산액 구성 추이 (단위:%)

|      | 합 계 | 인건비  | 물건비  | 부조비  | 보조비  | 보통건설<br>사업비 | 재해복구<br>사업비 | 공채비 | 대부금 | 기타  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|
| 2019 | 100 | 16.7 | 13.8 | 23.3 | 7.4  | 13.7        | 0.8         | 9.3 | 1.7 | 13.3 |
| 2020 | 100 | 14.0 | 11.4 | 18.9 | 24.3 | 11.0        | 0.6         | 7.2 | 2.2 | 10.3 |

출처: 総務省(各年度)『地方財政統計年報』1-4-9表(市町村性質別歳出決算累年比較)를 이용하여 작성

## 평가 및 시사점

- ▶ 일본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고지출(보조)금의 증대를 통해 주민에게 안정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음
- ▶ 국고지출금이 상승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의 이전재원을 통해 지방재정에 상당 정도 개입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음
- ▶ 일본 중앙정부는 다량의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로 도도부현의 대부금 지출, 시정촌의 보조비 지출을 증대시켜 코로나19에 대처하였음
- ▶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증대시켰다는 것은 지자체의 평상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

국중호 통신원

kook@yokohama-cu.ac.jp

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